

# 2023년까지 처리 대책 못세우면 한빛 1·2호기 영구 폐쇄 가능성



<중> 사용후핵연료 무대척

202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는 영구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늦어도 2023년 수명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 대책이 없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 연장이 통과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발전소 원자로(1~6호기)에서 타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보조건물 내 임시수조에 저장 중인데, 오는 2024년 그 공간이 가득 차게 된다. 애초 2019년 저장 공간이 포화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 측이 수조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시설(조밀락)공사를 거쳐 좀더 종종히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기로 하면서 포화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로드맵(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전국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 시설 건립 전 저장공간이 포화하는 발전소(한빛원전 등)는 부지 내에 별도의 단기저장 시설을 한

2025년·2026년 각각 수명 만료 현 상태론 연장 신청 통과 안돼 정부는 단기저장시설 건립 제시 막판 줄속 건립 뎀 재양 우려도 내달 추가 시설 논의 본격화

수원과 지역 협의 아래 건립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한빛원전 부지 내 단기저장 시설 건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한수원과 지역(영광을 포함 광주·전남)이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에 합의할 경우 비교적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 발전소 운영에는 이렇다할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전문가들은 한빛원전처럼 경수로 방식은 단기저장 시설 건설의 경험이 없는 탓에 기술 확보, 규제 지침(건설 및 관리) 마련, 설계와 시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지역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한빛원전 1~6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전 정지시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발전소 부지 밖에서 마련한다고 밝힌 중간저장시설이 완공되는 2035년까지 버티는 것이다.

부지 내 단기 저장시설 건립 관련, 한수원과 지역의 협의 과정에서 한빛 1, 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설계수명 만료 5년부터 최소 2년 전에 원자력사업자인 한수원이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 없는 수명연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한빛 1, 2호기는 오는 2025년과 2026년 40년으로 설계된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영광주만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대신 한빛 1, 2호기의 폐로(영구정지)를 요구하는 등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마지막 시나리오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포화시기에 임박해 지역과 한수원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 줄속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는 최소 10만년이나 인류와 격리시켜야 할 정도로 엄청난 열과 방사선 등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내뿜는 만큼, 발전소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줄속 건설은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정부 안이 확정되는 7월 이후, 지역과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 발전소 부지 내에 줄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조지 내부적으로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을 원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폐기물 대책 수립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보건휴가 내려면 폐경 관련 진단서 가져오라” 순천 청소용역업체 여성 2명 휴가 불허 논란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2명의 여성에게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근로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최근 여직원 2명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며 반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이 과정에서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해당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휴가일 만큼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기까지 했다.

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회사

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 (미사용 소멸)’이라는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단협 당시 ‘보건휴가’를 ‘생리휴가’를 전제로 한 취지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생리휴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은 노동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까지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보건휴가를 반려한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 벌어진 노동조합의 파업 이후에 일어나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직원 폭행·무고죄 혐의 조선대 전 사외이사 징역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직원을 폭행·무고한 광주의 한 사립대 사외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학교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되레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상해·무고 등)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전 사외이사 황모(7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23일과 4월21일 광주 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선대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으러 온 학교 직원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둑발로 경장이를 걷어차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폭행을 당한 직원 A씨가 고소하자 황씨는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허위 사실로 맞고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1명 10년전 대전서도 성폭행

### DNA 일치...본인은 부인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 10년 전에도 타지역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경찰은 7일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의자 김모(38)씨의 DNA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 미제로 남아 있는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21일 밤 10시경 대전시 서구 A(여·당시 20세)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A씨가 나오자 강제로 밀치고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유치원 학부모인 김씨는 앞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공범 박모(49)씨, 이모(34)씨와 함께 지난 4일 구속됐다.

김씨는 현재 두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여교사가 위험하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켜주기 위해 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죄를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연립사택·CCTV 등 안전 대책 다각 모색

### 교육부 후속 대책 논의...경찰, 섬 치안실태 대대적 조사

섬마을 학부형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서·벽지 관사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교원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교육부는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 교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피해 교사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안정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 치유와 법률 상담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인 응징을 받았을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생에 대해서도 추중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

원 현황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장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 시스템 관리 현황 ▲관사 내 사고 발생시 구조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들여다보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시·도 교육청별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행정자치부,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와 관사 주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함께 단위 학교 사택을 지양하고 연립 사택을 증축하는 ‘사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2015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따라 지난해 ▲사택 증축 및 아파트 구입(8동 76세대) ▲사택 보수(37동 97세대) ▲사택 비품 확충(4동 25세대) 등을 해왔고 올해도 관련 예산 78억여원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섬 지역 치안 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경찰관이 상주하는 섬 지역에 최근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 범죄 취약요소나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통장 등을 ‘지역 지킴이’로 뒤 경찰과 수시로 공조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침수 예방 하수관로 점검 7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흥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하수준설차를 이용, 하수관로에 쌓인 토사물 등 침전물을 제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동네조폭의 말로 ‘쇠고랑 신세’

○동네 영세상인을 괴롭히고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40대 ‘동네 조폭’이 결국 쇠고랑 신세.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구에 거주하는 장모(46)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경 신가동의 한 한영 열거에서 주민 A(60)씨의 얼굴과 주먹을 때리는가 하면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신가동의 한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 등 전과 35범인 장씨는 지난 1990년부터 술을 마시고 신가동과 운남동 등을 돌며 무전취식과 주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대지

###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평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 모텔

### 호텔급 숙박 업소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평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회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좋은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경매투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